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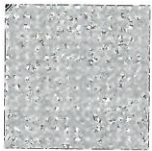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6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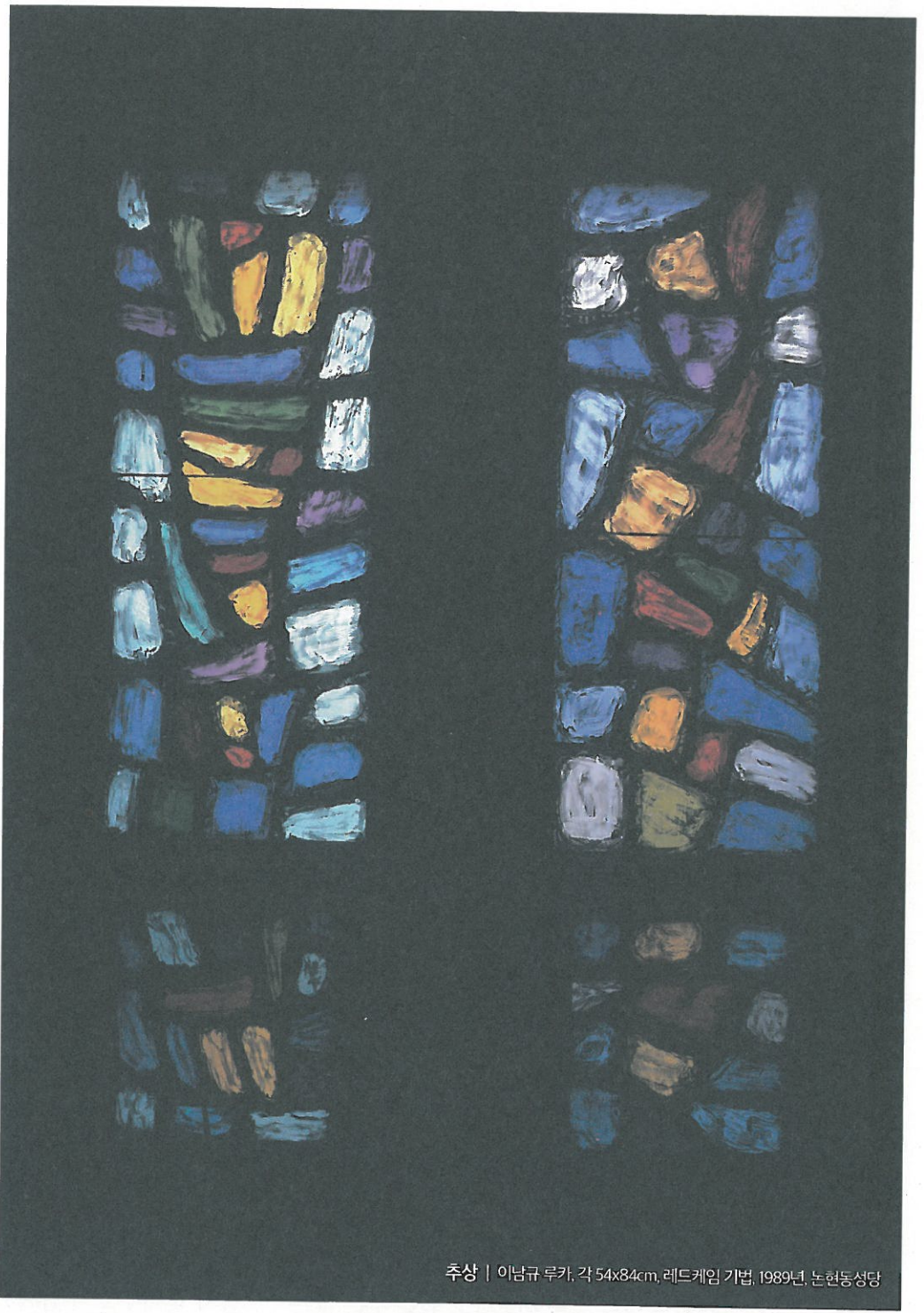
2023년 8월 13일(가해)

연중 제19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추상 | 이범규 루카, 각 54x84cm, 레드케임 기법, 1989년, 노현동성당

입당송 | 시편 74(73), 20.19.22.23 참조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제1독서 | 1열왕 19,9-11-13ㄱ

화답송 | 시편 85(84), 9-11-12과 10.11-12.13-14(◎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

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 로마 9,1-5

복음환호송 | 시편 130(129),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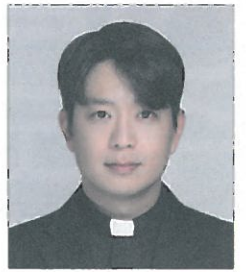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복음 | 마태 14,22-33

영성체송 | 시편 147(146-147), 12.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방종우 아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이탈리아로 유학을 나가기 전, 하느님께 몇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근경색의 경험이 있던 아버지와 나이가 많으신 외할머니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제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석사 1년 차 여름, 아버지는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같은 해 겨울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버지와 할머니의 부고를 차례로 전해 들었던 그 괴로웠던 밤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슬픈 마음으로 영영 울었지만 곧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제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보란 듯 거절하신 하느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투덜거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곁에서 바로바로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정말 내 곁에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부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은 것이 있다면, 주변에 저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신자분들이 모여 위령기도를 바쳤고, 수많은 신부님들이 함께 매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확히 1년 하고 3일이 지난 뒤에는 사랑스러운

막내 조카가 태어나 아버지와 같은 세례명으로 직접 세례를 줄 수 있었지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유학을 나오기 전에 드렸던 나의 기도는 거센 바람을 보고 미리 두려워하며 의심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대신,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 제가 겪게 될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바쳤다면 주님을 덜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리하여 올바른 기도의 자세란 먼저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과 도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 다양한 고통, 수많은 갈등과 미움.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지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피하고 싶은 파도가 느닷없이 우리의 삶을 덮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주님이 맞냐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 조금은 슬픈 목소리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은 잠시 놓아두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주님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마태 14,31)

믿음에 기댄 채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하지만 제 믿음은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잠시라도 파도에 시선이 옮겨지면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추상으로 표현된 스테인드글라스의 푸른색은 파도처럼, 때로는 그리스도의 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손은 불안한 존재인 저에게 도전하고 어려움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용기를 줍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쉬지 말고 나아가라

세례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자마자 저는 견진 교리반에 들어갔습니다. 세례 때와 마찬가지로 교구 수녀님께서 회사로 와 교리교육을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혹은 아침부터 아침까지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탓에 정기적으로 꽤 긴 시간을 성당에 가서 공부해야 하는 본당 교리반에는 선뜻 들어갈 수 없었던 저로서는 다시 한번 행운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먹여주는 음식을 맛나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석 없이 교리 수업을 듣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방송사 업무라는 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맡았던 업무는 통상적인 프로그램 홍보만 아니라 외부의 보도에 대한 대응도 포함 되어 있었기에 우발적인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잡힌 회의 때문에 수업에 들어가지 못할 뻔한 날도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4주간 모두 11개 과목을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나자렛 예수님’,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와 죄인’,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예수님 부활’, ‘성령과 견진성사’, ‘복음화의 결정체인 성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등으로 이루어진 강좌는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귀하디귀한 성령의 음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은 저의 내면은 견진 교리를 들으면서 하느님을 향한 열정으로 더욱 타올랐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은 곳은 명동성당이었습니다. 당시 교구장이었던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집전하셨습니다. 그 전날 꼬스트홀에 모여 종합 교리 공부를 하고 예절 연습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세례 때와 같은 분으로 하였습니다. 그



김재홍 사도요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분은 자기 아들을 교구 사제로 키워낸 저의 처고모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성전에서의 미사는 성사를 받는 저의 내면을 하느님의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했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선택되었다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번뜩였습니다. 특히 저의 이마에 성호를 그어주시는 추기경님의 손길은 마치 하느님의 체온인 양 저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견진 교리를 공부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쉬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명하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를 모르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견진을 모르면서도 견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교리 수업 후 제출한 저의 영적 독서 제목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로마 8,25)였습니다. 저는 견진을 받으면서 “머리의 99%는 시(詩)에 가 있고, 몸의 99%는 회사에 매여 있다.”는 모순된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굳세고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악행은 행동의 결과 때문에 흔히 악행을 저지른 사람보다 오래이며, 후손들의 양심과 기억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만것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양심'

성요한 바오로2세 교황님, 기억과 화해: 교회와 과거의 과오들 5장에서 내적으로 쇄신되고 은총과 성덕으로 성숙하려면 지난 역사의 과오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며,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시며



그림 | 승현철 안토니오

성령을 믿으며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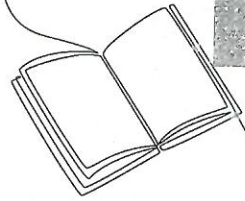
신경은 크게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께 대한 신앙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은 사실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고백인 것이지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 성령은 우리에게 뭔가 조금 덜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그려볼 수 있는 것에 비해 성령에 대해서는 그것이 쉽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도 이 어려움을 인정하는데, 아마도 ‘얼굴도 없고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보통 숨, 예수님께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분, 제자들에게 불혀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청하여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요한 14,16; 16,7 참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활동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게 하시는 이(갈라 4,6; 로마 8,15-16,26), 당신께서 원하는 대로 선물을 나눠주시는 이(1코린 12,11), 자유를 주시는 분(2코린 3,17)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견하기도 하시고, 혹은 가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5,28에서 사도들은 “성령과 우리는 … 결정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을 단순히 어떤 힘, 에너지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구분되는 ‘위격’으로 분명하게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보면 성령은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요한 16,13)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구분되는 매우 중요한 성령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해설자’로서 제자들을 진리로 이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고, 전하고 증언하게 하며, 우리와 함께 머무는 위로자이신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모든 시대와 사람들 안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분이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아무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1코린 12,3 참조) 성령은 교회와 제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분(사도 2,4),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분(로마 8,15)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는 복음 선포의 중심에 현존하십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성령이 계신 곳에 교회와 온갖 은총이 있다.”

이처럼 성령은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을 지금 여기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므로, 성부와 성자와 분리되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경은 성령에 대하여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영,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바오로의 2차 선교 여행

(15,36-17,15)

필리피, 테살로니카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드디어 바오로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루카는 두 번째 선교 여행에 앞서 바르나바와 바오로의 대립을 서술합니다. 마르코를 이번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자는 의견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입니다. 아마도 마르코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보여 주었던 행동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르코는 어떤 이유에 서인지 모르겠지만, 팜필리아에서 바오로 일행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성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라 판단했기에 바오로는 그가 이번 선교 여행에서 제외되길 원했습니다. 결국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이 문제로 서로 갈라서게 되었고, 바오로의 2차 선교 여행은 실라스와 티모테오라는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잠시 여기서 마르코라는 인물을 알아보면, 그는 바르나바의 사촌이면서, '요한 마르코'라는 이름이 붙은 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 마르코 복음서를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오로는 서간을 쓰면서, 마르코를 자신의 훌륭한 협조자로 묘사합니다.(골로 4,10-12; 2티모 4,11; 필레 1,24 등) 다툼이 있었지만, 화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오로는 실라스, 티모테오와 함께 본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성령의 인도 아래, 아시아를 넘어 오늘날 유럽이라 부르는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일은 50-52년경의 일로 추정되는데, 이번 선교 여행에서 바오로는 깊은 애정을 맺을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필리피 신자입니다. 코린토 첫째 서간을 보면, 바오로는

복음 선포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렸습니다.(1코린 9,11-15; 2코린 11,7-9) 그러나 필리피 신자들은 예외였습니다. 테살로니카 선교 때도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의 도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필리 4,15-16 참조)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싫어했던 그에게 필리피 신자들만큼은 예외였고, 이는 바오로와 필리피 신자들의 사이가 각별했음을 보여줍니다.

필리피와 테살로니카의 선교는 평탄하지 않았습다. 오히려 바오로 일행에게 매질과 투옥이라는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오로와 그의 동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오로에게 박해는 복음 선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로서 겪는 당연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필리 3,10) 그러나 바오로는 자신의 고난에 필리피 신자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칭찬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필리 3,18) 우리 주변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과 동참하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주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 삶의 중간마다 고난을 거부할 것인지 동참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바오로는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재활용품의 귀재(鬼才) 행복한 예술가



이정희 유니게 수녀 |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연물들을 보노라면 그네들이 제게 말을 건네 오는 것만 같기 시작했습니다. 감꼭지나 토마토 꼭지를 보면 반짝반짝 별들이 미소를 짓는 것 같고, 감 씨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빙그레 웃고 있는 성탄 구유가 보입니다. 돌, 나무 열매껍질, 조가비, 마른풀, 아이스크림 막대, 자투리 색지, 지난 달력지, 심지어 다 먹고 난 과일 씨앗에서도 다른 의미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저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다양한 물품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의 손을 거쳐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작품들은 현재 '성분도 은혜의 뜰' 전시실에서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경이로운 마음의 선물이 되거나, 때론 소박한 모습으로 위안을 주는 영혼의 심터가 되는 몫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무심코 지나치고 버려지는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것들이 사랑과 기쁨을 선사하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누가 알아주

든 그렇지 않은 수도 여정 안에서 특별한 선물, 그 소명을 소중히 지켜가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활용품 재사용 정신은 오늘날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실천돼야 할 덕행이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으로 반포하신 《찬미받으소서》 정신인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마음으로,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만든 저의 소박한 작품 일부를 나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하게 확산되던 시기에, 그동안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살아왔었던 우리들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회심으로 삶을 방향 전환할 것을 희망하며,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終熄)을 기원하며 만든 모자이크 작품.

- ※ 코로나19 바이러스(네 귀퉁이는 전 세계의 상징) 고사리 모양은 바이러스의 활동성
- ※ 재료: 자투리 색지, 고추씨(후광), 참외씨(12개의 별) 검은깨(성모님 머리카락)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탄생 200주년 기념 작품

2021년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으며, 슬퇴에서 탄생하신 순간부터 성인품에 오르기까지 연도별로 10가지 주제에 따라 표현한 모자이크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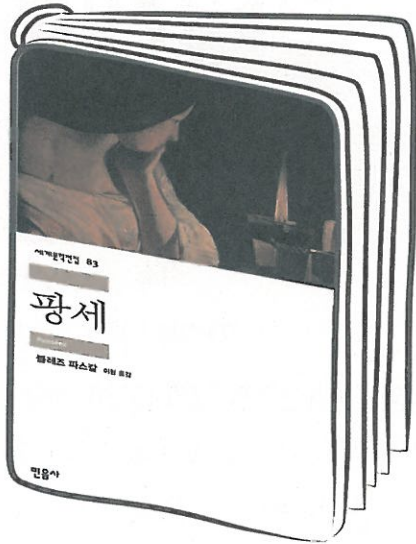
- ※ 재료: 자투리 색지, 지난 달력지, 고추씨(후광)



자연물로 만든 액세서리 작품

동백나무 열매껍질, 탕자 열매, 조개류, 각종 씨앗, 원석 등으로 만든 목걸이, 브로치, 귀고리, 가방 장식 고리 작품

- ※ 동백나무 열매껍질 및 탕자 열매는 3년에서 7년 정도의 건조 기간이 지난 후 작품으로 만들,
- ※ 각종 씨앗들도 일정한 건조 기간을 거친 후 작품으로 만들.
- ※ 재료: 고추, 멜론, 사과, 배, 대추, 참외 씨, 좁쌀, 동백나무 열매껍질, 탕자 열매, 오본자 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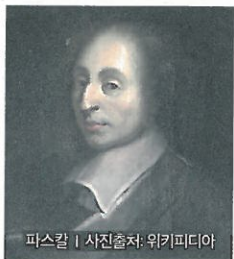
도서 '팡세'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 파스칼의 《팡세》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지난 6월 19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흥미로운 교서¹⁾를 발표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는 교서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파스칼(1623-1662)은 39세에 요절한

천재적인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옹호하는 《팡세(Pensées)》라는 책을 남겼고, 신학적 논쟁으로 예수회원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파스칼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그 천재성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파스칼은 그런 성취에 자만하지 않았고, 그래서 교황님은 그를 “지칠 줄 모르는 진리의 추구자, 보다 새롭고 보다 큰 지평에 개방되어 안주하지 않는 영의 소유자”라고 묘사합니다.

파스칼은 여러모로 제게 흥미롭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에서 천재성으로 주목받지만,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보인 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오늘날 대중교통의 시초가 되는 옴니버스 마차를 세

계 최초로 파리에서 시도했습니다. 교황님은 이런 측면에서 파스칼이 당대의 문제, 그가 살았던 모든 사회 구성원의 물질적 필요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교황님은 지식인이나 엘리트가 자신의 성공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두기를 바라기에 이 측면을 강조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게 좀 더 흥미로운 지점은 파스칼의 ‘회심 체험’입니다. 교황님 서한에서는 이를 “회심, 주님의 방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체험은 그가 31살이던 1654년 11월 23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불”, “확신”, “기쁨의 눈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강렬한 체험을 간접적으로 표현했고, 그 글을 옷의 천 사이에 넣고 꿰매어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그가 죽은 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 만남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야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철학자와 식자의 하느님이 아닙니다.”라고 썼습니다. 이성과 지식을 넘어서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갖는 절대 지평을 느끼게 합니다.

파스칼이 남긴 《팡세》는 단편적인 글을 모아 놓은 유고집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다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칭찬받기를 원하면 자화자찬을 하지 말라.” 등 유명한 금언이 실려 있지만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인간과 신앙에 대한 파스칼의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지평 안에서는 종교를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거나, 예수님을 ‘인생 코치’ 정도로 여기는 식의 현대 ‘합리적’ 종교인이나 ‘합리적’ 세속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느님을 아는 것은 자만을 낳는다. 하느님을 모르고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또한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 있다.”라고 설파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을 옹호하고 전하고자 했던 파스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우리도 신앙의 보물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영감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 (Sublimitas et Miseria Hominis)>

2023년 / 가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접수기간 : 2023년 8월 13일부터 선착순 접수

접수방법 : 문화학교 홈페이지(culture.catholic.or.kr) 인터넷 접수

영성 강좌

강좌명	교육 내용	일정	장소	수강료
'청년' 헬로우 기도	기도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월모임	매월 첫 번째(화) 19시30분~21시	명동성당 소성당	무료
도심 속 반나절 피정	영적독서를 통해 하느님과의 만남	매월 네 번째(금) 15시~18시 / 10월은 세 번째(금)	영성센터 A303호	회당 1만5천원
렉시오 디비나	전례 말씀으로 주일 준비하기	9월8일~10월13일 매주(금) 10시~11시30분 (5회)	A303호	3만원
주님께 다가가는 글쓰기	함께 성장하는 신앙과 글쓰기	9월14일~10월26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6회)	A304호	8만원
'청년' 향주삼덕	믿음, 희망, 사랑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10월11일~11월8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5회)	A303호	3만원

인문학/교회사/미술사 강좌

강좌명	교육 내용	일정	장소	수강료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교회사: 음식으로 보는 교회사	9월7일~11월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9회)	영성센터 B203호	1과목 3만원
	건축: 성당, 빛의 성작 - 전례와 공간3			3과목 8만원
	성경: 바오로 사도가 마주했던 신앙 공동체들			
교회사연구소 공개대학	대한민국과 교황청, 60주년을 돌아보다	9월6일~10월25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7회)	A104호	8만원
교회 미술사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10월17일~11월7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4회)	B201호	5만원

문화 강좌

강좌명	교육 내용	일정	장소	수강료
아크릴 물감으로 성화 그리기	아크릴 물감 사용법 익히고 성화 그리기	9월13일~10월18일 매주(수) 15시~17시 (낮반/5회)	영성센터 A302호	9만원 (재료비 포함)
		9월13일~10월18일 매주(수) 19시~21시 (저녁반/5회)		
디지털로 시작하는 가톨릭 드로잉	'스케치북'을 이용한 태블릿 드로잉	9월13일~10월18일 매주(수) 15시~17시 (낮반/5회)	A304호	7만원 (태블릿 지참)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용한 태블릿 드로잉	9월13일~10월18일 매주(수) 19시~21시 (저녁반/5회)		
한글서예 성경 말씀 쓰기	한글 전통 서체인 궁체로 성경 말씀 쓰기	10월5일~26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4회)	A302호	5만원(재료비 별도)
우쿨렐레 성가 연주	우쿨렐레로 성가 연주하기	10월5일~11월9일 매주(목) 19시~21시 (6회)	B303호	8만원(악기 지참)
에그리라 성가 연주	에그리라로 성가 연주하기	10월5일~11월9일 매주(목) 19시~21시 (6회)	B304호	※ 공동구매 가능
세례명 수제 도장 만들기	이름/세례명/문양 수제도장 만들기	10월12일~11월2일 매주(목) 19시~21시 (4회)	A303호	5만원(재료비 별도)
나만의 십자가 만들기	목공예로 나만의 버팀목 십자가 만들기	10월10일~31일 매주(화) 19시~21시 (4회)	A302호	5만원(재료비 별도)
캘리그래피 성탄 카드	캘리그래피로 성탄 카드 만들기	10월10일~31일 매주(화) 19시~21시 (4회)	A303호	5만원(재료비 별도)
수어로 드리는 기도	수어로 기도문을 배우고 익히기	10월10일~31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4회)	A304호	5만원
기도 담은 밀랍 대림초	밀랍을 이용한 대림초 만들기	10월18일(수) 14시~17시 (1회)	A303호	5만원(재료비 포함)

소식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5년 8월 19일 최민순 요한 신부(63세)
- 1977년 8월 15일 이기준 토마스 신부(93세)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사목국 홈페이지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내용 참조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주교좌 명동대성당 하반기 견진성사

신청대상: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단, 세례성사를 받고 3개월이 지난 신자부터 신청 가능)
 신청기간: 8월20일(일)~9월10일(일)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자세한 일정과 준비서류는 명동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고) / 문의: 02)774-1784 성당사무실
 교육일정: 9월17일~10월22일 매주(일) 13시30분~15시30분(5주간 / 대면수업)
 견진성사: 10월29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제135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가톨릭사회교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 9월15일까지 접수
 때: 9월18일~11월20일 매주(월) 19시~21시(8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수강료: 8만원(우리 454-009601-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신청): 02)727-2431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tholicjp.or.kr) 참조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3년 하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8월7일(월)~30일(수)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9월4일~12월11일 매주(일),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9월4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루카복음), 직장인(정기강좌 4권) 성서못자리
 때: 9월6일~12월13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개강미사: 9월6일 19시30분, 명동 소성당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4권-동부 화요일 · 서부 목요일 / 2권-동부 화요일)
 수강기간: 9월5일~12월14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플랫폼 활용)
 수강기간: 9월4일~12월31일 / 회비: 10만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때, 곳: 9월1일(금) 16시, 명동대성당
 주제: 박현동 아파스와 사제단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나눔 봉사자 교육(온라인)

대상: 신임 예비 신자 교리 나눔 봉사자
 때: 9월7일~11월30일 /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회비: 6만원(8월31일까지 접수)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5 사목국 교육지원팀

청년들과 함께하는 하쿠나 성시간

마드리드 교구에서 시작, 전세계로 확장 중인 청년 신심 운동 하쿠나(Hakuna Movement)전례에 초대합니다
 하쿠나 성시간: 8월24일(목) 19시30분, 이문동성당
 하쿠나 미사 & 성시간: 8월25일(금) 19시30분,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내 콘솔레이션홀
 문의: 02)777-8249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202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1989년 2월28일 이전 출생)
 원서접수: 9월11일(월)~15일(금) 인터넷 접수
 면접평가: 11월3일(금) /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 안내

1) 2023년 실사프로젝트 4대 종단과 함께 하는 열린포럼
 때, 곳: 8월17일(목),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전문문화공연장 / 주제: 유가족 돌봄을 위한 세미나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 '슬픔 속 희망찾기' 8월 유가족 미사
 때: 8월19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 집전사제: 차바우나 신부
 곳: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9월애 동반' 서울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순례기간 및 순례자여권세트 구입방법

순례기간	8월15일(화)~9월24일(일)	순례기간중순례자여권세트구입 후 개별 순례자여권세트발급
참여방법	① 가까운 판매처 12곳에서 일정금액 이상 기부 후 순례자여권 세트 수령 ② 천주교 서울순례길 순례하며 스탬프 날인 ③ 순교자성혈을 담은 미사(9월24일)에서 완주여권 제출 후 추복장 수령	순례자여권세트 판매처: 가회동성당, 광희문성지, 교구역사관, 왜고개성지, 당고개성지, 삼성산성당, 새남터성지, 서소문밖네거리성지, 절두산성지, 종로성당, 중림동약원성당, 그리고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순례자여권세트 구입비는 전액 이웃사랑실천기금으로 사용
 문의: 02)2269-0413 /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김옥덕 성화전: 1전시실
 허영 개인전: 2전시실
 남주연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8월23일(수)~31일(목)
 문의: 02)727-2336

온라인 가톨릭 교리학교

대상: 교리봉사자, 교리교사
 때: 9월~2024년 2월(24주 과정)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 회비: 8만원(8월25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제46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일반 신자, 수도자, 성직자, 관심자 누구나
 내용: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 곳: 8월23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강사: 강석중(명예교수, 경상국립대 해양생명과학과)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 회비 없음

제19회 서울시교우협의회 신앙대회에 초대합니다

행사명: 제19회 서울시교우협의회 신앙대회
 내용: 복음 특강 및 찬미의 시간, 개회식과 장엄미사 등
 대상: 서울시 가톨릭공직자 및 가족, 퇴직자
 때: 9월9일(토) 13시~17시
 곳: 하상장애인복지관 지하강당(개포동)
 문의(신청): 기관별 교우회 총무, 02)727-2078 직장사목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모집분야: 재무회계, 콘텐츠디자인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일원동성당 방호원(관리인) 모집

대상: 세례받은 신자(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
 업무: 본당 시설물 관리, 미화, 영선, 기타 방호 업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8월19일(토)까지 우편(우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09길 38 일원동성당) 및 이메일(tyhj6362@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8월19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188-2793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8월20일(일) 13시30분	본원(미아리)	010-9816-0072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8월19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의방선교회	9월3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인준단체 알림

모임

훈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회비: 115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강사: 이상기 / 문의: 010-8898-6770
 때: 8월19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담당: 김인성 신부

2023년 성모술술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일 둘째주(금·일) 2박3일 9월8일~10일·10월13일~15일·11월10일~12일 /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하부내포 성지순례 / 문의: 010-3807-1784
 때: 9월16일 신지도-불무골(미사)-산막골(도보 구간)-작은재-독미-지석리, 11월18일~19일 해미성지 심포지엄(24시 십자가의 길)-한티재(도보 순례)-해미읍성 / 출발: 7시30분, 명동(대형 버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9월1일~3일·9월5일~7일·9월8일~10일·9월16일~19일(추차도)·9월23일~25일·10월1일~3일·10월7일~9일·10월12일~14일·10월17일~19일, 연말연시(해넘이-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2024년 1월2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우이동 명상의 집 8월 피정 / 문의: 02)990-1004

다네이 영성수련 피정	8월24일~27일(3박4일)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 무료
개인 피정 위탁 피정	별도 문의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 순례	8월26일~28일, 9월3일~5일, 9월16일~18일, 10월2일~4일, 10월29일~31일, 11월10일~12일
성지순례 (추차도성지 포함)	9월10일~13일, 10월7일~10일, 10월15일~18일, 11월4일~7일
연말연시 특별 피정	12월29일~2024년 1월1일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22시30분~새벽 4시	미사: 11시30분
치유기도회	(수) 12시30분~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0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22시~새벽 4시30분	미사: 2시40분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성경학교	(화) 13시~15시30분 / 미사: 넷째주 14시30분	

교육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초보자 화요일만 14시·금요일만 14시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작은형제회 청년성서모임 가을학기 그룹원 모집
 과목: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접수: 8월14일~25일
 문의: 010-2752-5517(cafе.naver.com/feebible)

가톨릭관동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접수: 9월11일(월)~15일(금) / 모집: 의과대학, 헬스케어융합대학, 사범대학, 트리니티융합대학 등
 가톨릭계 고교 학생, 신자를 위한 특별전형 운영 및 장학금 지원 / 문의: 033)649-7000

예수회센터 강의·피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1) 가톨릭 지성과 영성의 현장 예수회센터 강좌
 영성, 성서, 심리, 문화, 생태 강좌 개설
 첫 강의 1교시는 온라인 무료 수강 가능
 검색창에서 예수회센터 홈페이지(center.jesuits.com)로 들어오세요

2) 레지오·성가대·제 단체 일일위탁 피정
 때: 10시~15시30분(미사로 마침) / 지도: 예수회 사제

서울대교구 젊은이 성령세미나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 넣어 너희가 살아 나게 하겠다.”(에제 37,5) / 회비: 5만5천원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 인스타그램: @ruah.fiat
 문의: 010-2672-9604 청년성령쇄신봉사회

무박 2일 9월23일(토) 10시30분~19시·9월24일(일) 10시30분~18시,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하반기 금요영성특강
 때: 9월8일~12월15일 (금) 16시~17시(총10회)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 B1 명례방 / 강의 일정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 02)3147-2402

순교자성월	원종현 신부, 이형전 신부, 백종원 신부
위령성월	이서원 소장, 박승찬 교수, 이동숙 교수, 이영숙 수녀
대림시기	김경희 수녀, 조경자 수녀, 김영선 수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국악가-대금·소금·단소	(목)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
생활음악악기-팬플룻·통기타·우쿨렐레	오카리나·아이리시틴휘슬 ~20시 / 010-7930-2074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 010-7244-1312

2023년 2학기 '여정' 성서공부 / 문의: 010-7194-3780
 때: 8월28일~12월1일 / 접수: 8월13일~21일(회비: 6만원)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 / 주최: 여성성서교육관

	10시~12시	20시~22시
8월28일(월)	예언서	예언서
8월29일(화)	성경통독	
8월30일(수)	가톨릭서간·요한묵시록	가톨릭서간·요한묵시록
8월31일(목)	역사서 1	
9월1일(금)	루카·사도행전	
특강	마리아론: 조한규 신부 / 은총론: 최현순 교수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들'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추직, 신촌)

미국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2 / 1년 이상
 문의: 02)2258-8983(www.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모집

국악성이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국악성이연구소
 오디션곡: 자유곡 1곡 / 대상: 60세 이하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3733-6526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8월17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때, 곳: 8월17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첫째주(토)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넌(논현)

안내

카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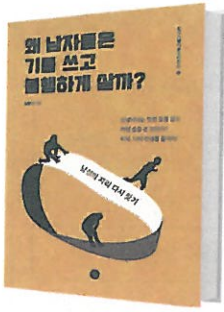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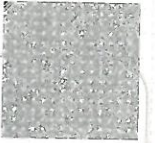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모지 하늘의 문 성당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30년(추가 30년 가능) / 봉한금: 400만원·500만원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목요반 강의 9월7일부터 매주(목) 10시~11시30분(14주), 그룹훈련 11시30분~13시, 금요반 비대면 온라인 강의(Zoom) 9월8일부터 매주(금) 10시~12시(14주)

유관단체 알림

코로나로 중단된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재개
 대상: 청년, 청소년과 동반 부모 / 문의: 02)744-0840
 때: 매일 세번째(토) 8월19일·9월16일·10월21일 16시
 곳: 햇살사목센터 성당(추직, 혜화로2길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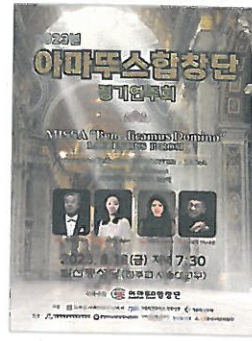


신간

왜 남자들은 기를 쓰고 불행하게 살까?

김정대 지음
바오 | 223쪽 | 1만2천원
문의: 010-2254-3283

저자는 오랫동안 사목 현장에서 위기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동반했다. 그는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보다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체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현재 남성이 처한 상황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가톨릭교회의 사제로서 인간 성장의 관점에서 그리고 영성적인 관점으로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주회

2023년 아마투스 합창단 정기연주회

전석초대
때, 곳: 8월 18일(금) 19시 30분, 발산동성당
문의: 010-9338-5276 아마투스 합창단

올해 창단 26주년을 맞는 사목국 단체사목부 소속의 아마투스 합창단(지휘:박재광, 오르간:최신영)이 8월 18일(금), 발산동성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1부에서는 로렌조 페로시의 미사곡 '베네디카투스 도미노'를 연주하고 2부에서는 그레고리오 성가와 가곡을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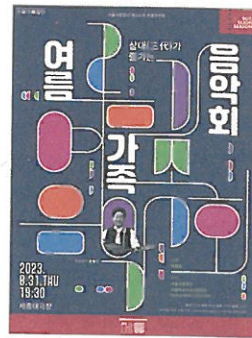


북콘서트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전석초대
문의: 02)945-5985 생활성서사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가 9월 8일, 명동대성당 1898광장에서 있다. 1부 로핑크 신부님의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와 2부 김도현 신부님의 《과학 시대에도 신앙은 필요하기》, 두 권의 책으로 열린 공간에서 패널들을 모시고 공연을 곁들인 '행복한 북콘서트'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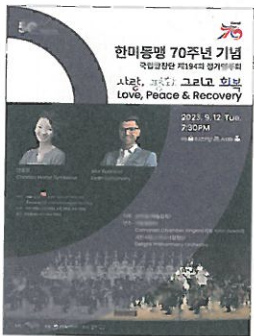


음악회

삼대(三代)가 함께 즐기는 여름 가족 음악회

입장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 문의: 02)399-1000
때, 곳: 8월 31일(목) 19시30분, 세종대극장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20% 할인

서울시합창단·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 여름 음악회'가 8월 31일(목) 19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에서 열린다. 클래식과 동요, 대중음악 등 멜로디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과 합창의 여러 연주 형태를 통해 합창 음악으로 풍성한 여름 가족 음악회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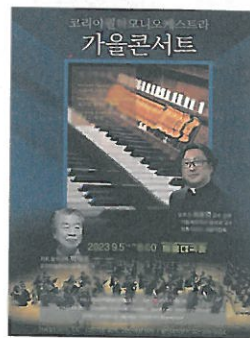


연주회

국립합창단 사랑, 평화 그리고 회복

입장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문의: 1668-1352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때, 곳: 9월 12일(화) 19시 30분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국립합창단의 제194회 정기연주회 <사랑, 평화 그리고 회복>이 9월 12일(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현재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는 환경 문제 및 자연과의 공생, 회복을 주제로 합창,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콘서트

코리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가을콘서트

때, 곳: 9월 5일(화) 20시, 세종대극장
입장권: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02)588-8654 한다우리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1명 30% 할인 (단체 10인 이상 40% · 20인 이상 50% 할인)

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주최로 코리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가을콘서트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에서 열린다.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교향곡 제7번이 연주되며,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의 성음악 감독인 최효영 신부의 협연으로 라인베르거 오르간 콘체르토 G단조 작품을 선보인다.

제2293(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8월 15일(화)	오전 7시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 주일학교 미사는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참례 하시기 바랍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8월 22일(화) 10시 미사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건회 60대 월례모임

일시 : 8월 24일(화) 오후 7시 / 201호
문의 : 박병근 세례자요한 (010-8293-8666)
정원근 다니엘 (010-5227-9379)
※ 대건회 월례모임에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8일(화) ~ 11월 16일(목)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신청은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여름캠프

일시 : 8월 25일(금)~27일(주일), 금요일 저녁 출발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청년 누구나 / QR코드 신청
회비 : 70,000원 / 학부모 50,000원
문의 : 비아 회장 (010-2550-2375)



◎ 비대면 청년기도모임 <프레희(喜)>

대상 : 연희동 청년 누구나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온라인-청년연합회 인스타그램 (@youth.yh)
내용 : 8월 <프레희 기도함>내 청년들의 청원기도 및 묵주기도(영광의 신비)
※ 청년 미사 전/후 성전 입구에 <프레희 기도함>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의 지향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성령기도회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장소 : 205호

◎ 청년성서모임 새암성서 봉사자/그룹원 모집

일시 : 8월 넷째주까지
대상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중 해당 과정 신청 청년
문의 : 사도요한 대표봉사자 (010-3223-5747)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청년 전례단

20 예그리나 / 30 프리모 신입단원 모집
제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청년 전례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전례단장 (010-8732-7810)

◎ 미사 시간에는 휴대폰 전원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8. 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68	793 (38.4%)	759 (36.7%)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감사헌금 (7월 31일 ~ 8월 6일)

진현수오만원	진영문일십만원
진현주오만원	익 명오만원
익 명일십만원	정수진찰만원
송명자일십만원	문지원일십만원
김은순오만원	김재균오만원
김정자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교 무 금 12,610,000원
주 일 헌 금 5,235,000원

입당	329	봉헌	332, 216, 510	성체	498, 334, 158	파견	68
----	-----	----	---------------	----	---------------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